

2026년도 1차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 선정 용량 1,000MW 내외, 입찰 상한가 147.686원/kWh 공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연도 입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에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태양광 보급 실적과 입찰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고 용량을 정하고,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변동 추세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가격을 조정했다.

총 공고 용량은 1,000MW 내외의 규모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kWh 수준으로 전년 상한가격 대비 약 △5%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탄소검증모듈* 1~2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를 감안하여 입찰 선정가격에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이 역시 최근 등급 외 모듈과의 시장가격 차이 등을 감안하여 1등급 16원/kWh, 2등급 7원/kWh로 각각 전년 대비 +4원/kWh, △2원/kWh 조정되었다.

* 태양광 발전 모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1등급(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음)부터 4등급까지 부여함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계약 단가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낮춰간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는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 왔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가격 하락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아울러,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여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물시장은 3년간 유지된 이후 폐지되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공고의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상의 비대면(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7월 21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입찰 공고 및 설명회 관련 상세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선정된 사업의 경우 장기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의 보급 확대, 가격 하락 정책의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편 법안 통과 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석중 (044-203-536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태양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203-5371)